



---

# 303 CLASS / 나와 이웃이 만날 때

---

만나며 사랑하며



수강자 성명: \_\_\_\_\_

## 제 1 과 태초의 만남

“여호와 하나님은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창 2:18~23).

“인간 관계란 둘 혹은 그 이상의 개체들이 서로 존재하며 소속되어있는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웹스터 사전의 인간관계에 대한 정의이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곳이다. 우리는 어머니 태 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거미줄 같은 인간관계의 연결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다. 때로는 이 관계 때문에 웃고 기뻐하며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다른 때는 이것 때문에 슬프고 비참해지고 아프고 외로워져서 죽음과 절망의 계곡을 넘나들게 되는 일도 생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삶에 있어서 그 행, 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인간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한가?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그 가르침의 대부분을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엮어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부터 몇 주 동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 공부해 보겠다.

1. 왜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에 불가피한가?

(1) 창세기 1 장 26~27 절

(2) 창세기 2 장 18 절

2.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관계' 들은 어떤 것들인가?

3. 이같은 '관계' 들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 여부에 따라

A. 선택의 자유가 없는 관계

B. 선택의 자유가 있는 관계

(2) 위치적 개념에 따라

A. 수직적인 관계

B. 수평적인 관계

(3) 깊이에 따라

A. 투명한 관계

B. 피상적인 관계

(4) 가치에 따라

A. 좋아하는 관계

B. 싫어하는 관계

질문: 바람직한 인간 관계란 어떠한 관계를 말하는가?

4. 무엇이 문제인가?

(1) 바람직한 인간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것들이 찾아올 수 있는가?

(2) 현재 내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 중 '바람직한 관계'가 아닌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5. 우리는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원하고 있다. 아래의 난에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적어보자.

6.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태초에 있었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가?

아래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한 후 '바람직한 관계'를 찾아보자.

(1) 창세기 1 장 27 절

(2) 창세기 1 장 28 절

(3) 창세기 1 장 31 절

(4) 창세기 2 장 19 절

(5) 창세기 2 장 18 절, 22~25 절

(6) 창세기 2 장 16~17 절

★ 좋은 인간관계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

## 제 2 과 만남의 회복

태초에 '만남'이 있었다. 그 만남은 참으로 인격적인 만남이었다. 그 만남에는 자유가 있었다. 그 만남에는 평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진실이 있었으며 사랑이 있었다.

우리는 모든 만남이 다 이런 만남이 되길 원한다. 나와 너의 만남에 자유, 평등, 진실, 사랑이 있다면 그 만남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그리고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다면 그곳은 곧 천국일 것이다. 우리 교회에 이 네 가지 보물들이 충만해 있다면 곧 세상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회에서 이 네 가지 영원한 진리들이 최고의 가치들로 인정되어진다면 그 사회는 곧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역사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사회일 것이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렇지 않은가? 왜 나와 너와의 만남에서 이네 가지 중 한 가지, 두 가지 혹은 전부가 결핍되어서 그곳에 자유, 평등, 진실, 사랑 대신에 강압과 분리, 허위와 미움이 자리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왜 우리 가정들은 사랑과 진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사선(四線)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되기보다는 텅텅 끊어지기 때문에 아파서 견딜 수 없고 조율되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 괴로운 소리밖에 낼 수 없는 버려진 악기처럼 되어 있을까?

왜 우리 교회들은 싸움과 분리, 교만과 편견의 소문만을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며 어찌하여 이 사회는 외로움과 슬픔, 아픔과 강포만이 더욱 팽배해가고 있을까? 태초의 만남은 그렇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태초의 만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그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본 다음에 그 원인으로 파생된 문제들을 식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들을 성경에서 찾아보자.

## 1.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1~2 장에서 펼쳐졌던 하나님과 아담의 아름다운 태초의 만남은 3 장으로 들어서면서 도전을 받게 된다. 이 만남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존재는 사단이다.

(1) 창세기 3 장 1~10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등장 인물은 누구누구 인가?

B. 결국 사단은 무슨 일을 했는가?

C.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어떤 행동들을 취했는가?

① 3 장 7 절

② 3 장 8, 10 절

D.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E.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무엇인가?

토론: 하나님이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는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음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2) 창세기 3 장 11~18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아담은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B. 아담의 주장은 무엇인가?

C.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D. 여자는 누구에게 핑계 대고 있는가?

E. 16 절 말씀을 읽고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써보라.

F. 17~18 절 말씀은 또 다른 분리를 말한다. 무엇인가?

(3) 결국 태초의 만남은 무엇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깨어졌는가?

2.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태초의 만남의 특징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진실과 사랑이 구속과 분리 그리고 거짓과 미움으로 바뀌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비교'에 있었다. 이 '비교'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이 '비교' 때문에 교만과 열등감이 우리의 생을 괴롭게 하며 이 '비교' 때문에 질투와 거짓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를 아프고 슬프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냈다. 태초의 그 좋았던 만남에서 현재의 추한 만남으로 우리 인간 관계를 바꾸어 놓은 악을 규명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악이, 또는 사단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그 좋았던 관계를 끊어 놓는 데 성공했는데 그렇다면 그 와중에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으며 왜 이런 깨어진 관계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질문이다.

성경은 이 질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분명히 답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셨는가를 공부하고, 이 모델에 따라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성취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1) 마태복음 20 장 20~28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내용을 요약하라.

B.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무엇을 요구했는가?

C. 이 사실을 안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D.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E.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뒷짐지고 방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아름다웠던 관계를 훼손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이는 그 관계를 더욱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였다. 우리 인간들에게 본을 보이셔서 앞으로 영원히 삶을 공유할 그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만남의 자세로 영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육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유익한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2) 요한복음 13 장 3~15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내용을 요약하라.

B. 유대의 풍습은 그 집에서 가장 낮고 천한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더불어 들어와 앉은 이 집에는 그럴 하인이 없었다. 그렇다면 무리들 가운데가장 낮은 자가 발을 씻겨야 한다. 만약 내가 그 무리들 중에 있었다면 그 기분이 어떠했겠는가?

C. 결국은 발을 씻기는 자가 가장 낮은 자이다. 누가 그 역할을 했는가?

D. 예수님의 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E.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어떤 잘못을 자주 범하는가?

F.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15 절 참고)

3. 하나님은 어떻게 만남의 회복을 이루셨는가?

(1) 창세기 3 장 8~9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누가 누구로부터 떨어져 나갔는가?

B. 누가 누구를 찾아갔는가?



(2) 빌립보서 2 장 5~8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 A.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6 절)
- B.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가? (7~8 절)
- C. 왜 그렇게 하셨는가?(빌 2:3)

(3) 요한복음 4 장 4~30 절까지 읽고 답하라.

- A. 내용을 요약하라.
- B.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하는 풍습이 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마리아인, 여자, 개 이런 순서였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4 장 4 절의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표현대로 그곳으로 가려고 하셨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왜 예수님은 그리로 가셔야만 했는가?
- C.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과 수직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어떠한가?
- D. 누가 누구에게 갔는가?
- E. 아래의 성경구절을 참조하여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는지 적어보라.

- ① 4 장 4 절
- ② 4 장 9 절
- ③ 4 장 16 절
- ④ 4 장 29 절

4. 예수님의 '만남의 회복'

예수님은 이를 완성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 곧 주를 믿는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를 사모하는 나는 '너'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암송 구절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5-8).

## 제 3 과 자유로운 만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 133:1~3).

위의 시편은 아름다운 인간 관계의 결정체인 '연합하여 동거하는 형제' 를 찬양하는 다윗이 지은 시이다.

'연합하여 동거한다' 는 표현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같이 거한다는 뜻이다.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번째 대제사장이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형님이었다. 그리고 그의 옷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12 개의 보석들이 달려 있었다. 대제사장이 인침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 바르게 되어 있었다. 그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내려 수염과 열두 개의 보석 줄이 있는 '에봇' 즉 대제사장의 옷으로 흘러 내려 가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향내를 발산한다. 큰형님으로부터 '연합하고 동거' 하는 모범적인 인간 관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내려가서 결국은 모든 백성들도 그런 향기를 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 비유에 실려 있다.

또 다른 비유는 혈문산의 이슬이다. 혈문산은 이스라엘 산 중 가장 높은 산이다. 이 산에 내린 이슬이 이스라엘의 모든 크고 낮은 산들에게까지 내림같이 그 근원은 하나이지만 거기서 나온 축복의 영역은 전체에 파급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하나이지만 그로부터 파급되는 축복은 전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그 축복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생이 '연합하여 동거함'에 있기에 가치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이 시를 통해 형제의 하나됨을 권고한다. 나뉘지 않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인간관계를 찬양하고 모두가 이렇게 살도록 권하는 시이다.

그러면 어떻게 '나뉘지 않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인간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 지난 과에서 배운 네 가지 원리들이 그 해답이다. 즉 그 관계에 자유, 평등,

진실, 사랑의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게 될 때 이런 '연합하여 동거함' 이 이루어지며, 이 기름은 선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흘러서 우리 주위, 교회 그리고 사회까지 흘러내리게 된다. 혈문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이 이 아름다운 연합은 하늘나라의 이슬이 되어 우리를 통해 전 세계에 내리게 될 것이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실 것이다.

사실 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역사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다. 아론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늘나라에는 이 '연합하여 동거하는'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다. 땅에 있는 우리도 흘러내리는 그 기름을 받아 '연합하여 동거'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혈문산의 이슬이 이제 시온의 각 산에 임해야 하겠다.

그 이슬들이 무엇인가? 반짝반짝 빛나며, 신선하며, 햇빛을 받아 오색이 영롱하게 아침을 찬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공부해 온, 또 하려고 하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진실과 사랑이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이루어져 있다. 주께서는 이것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겠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영생이 가치가 있으며 그 속에서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은 네 번의 보배로운 '만남'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만남에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으며 그 속에 진실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천국이 그곳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이 네 요소들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든지 진실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런 관계의 모습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아름답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잠언 24 장 3~4 절 말씀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라고 가르치고 있다. 앞으로의 공부를 통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얻으라, 수레바퀴 4 개의 살 중 하나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없을 경우에는 바퀴의 기능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려면 위 네 가지 요소들이 완전한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수레바퀴를 만들어 '나와 너' 가 타고 가는 이 수레에 인생의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기를 바란다.



### 1. 무엇이 자유로운 만남인가?

#### (1) 자유란?

▶ 웹스터 사전에 자유는 '강요나 강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되어 있다.

(2)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 관계 중 비교적 강요나 강압 없는 관계들을 나열해 보라.

(3) 위의 모든 관계를 살펴본 후 그 만남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 보라.

(4) 창세기 24 장 54~59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무슨 이야기인가?

B. 리브가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5) 결론적으로 자유로운 만남이란?

### 2.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심지어 우리가 원해서 맺었던 인간 관계까지 깨어지기도 하고 아픔이 있으며, 무엇이 우리의 '자유로운 만남'을 방해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는 깨어진 만남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기까지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두움과 절망, 외로움과 아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빛과 소망, 생명과 연합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유독 한 계층의 사람들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

(1) 마가복음 2 장 15~28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 A. 무슨 이야기인가?
- B. 16, 18, 24 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를 찾아 보라,
- C.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 D. 21~22 절 말씀은 무슨 뜻인가?
- E.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는가?

(2) 마태복음 7 장 1~5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 A. 내용을 요약하라.
- B. 비판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2 절 참고)
- C. 무엇이 문제인가?(3 절 참고)

(3) 마태복음 5 장 20~30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 A. 20 절 말씀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떤 사람들로 말씀하고 계신가?
- B. 21~22 절과 27~28 절 말씀들을 읽고 소감을 써보라,
- C.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어떠한 사람들인가?

D.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따져야 하는가?

3. 어떻게 해야 자유로운 만남을 창조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가?

(1) 성경의 예

누가복음 15 장 11~32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둘째아들의 요구는 무엇이었는가? (12 절)

B. 그 요구에 아버지는 어떻게 응했는가?

C. 왜 그렇게 나누어 주었을까?

D. '내' 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E. 이 둘째아들은 재산을 허비한 후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어떻게 살았는가?(15~16 절)

F. 17 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G. 20 절 말씀을 묵상한 후 답하라.

①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② 내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H.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비교해 보라.

I.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J. 무엇을 배웠는가?

K.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가?(갈 5:13 참고)

(2) 실제적 제안

A. 법을 들어 강요하거나 강압하지 말라(롬 3:20).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다. 고통의 인생길을 같이 걷고 있는 동반자들이다. 다 힘들게 ‘헉헉 거리면서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의 형제요 자매들이다. 따지기 전에 이해하려고 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의 허물을 생각해 보라. 정의를 사랑하되 사랑으로 포용하라(벧전 4:8).

B.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라(창 2:16~17).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자유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유는 고유의 인권이다. 이것을 억압하거나 제한당한다고 생각될 때 그곳에 분리가 일어난다.

C.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라.

① 부부간의 관계:

② 부모와의 관계:

③ 자녀와의 관계:

④ 친구와의 관계:

⑤ 상사와의 관계:

⑥ 직장동료와의 관계 등등.

★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어거스틴) ★

암송 구절

★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



## 제 4 과 평등한 만남



1. 무엇이 평등한 만남인가?

(1) 평등이란?

※ 웨스턴 사전에 평등은 '질 혹은 지위가 같은 상태' 라고 되어 있다.

(2)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 관계 중 비교적 평등한 관계들을 생각해 보라.

(3) 위의 만남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보라.

(4) 창세기 1 장 26~27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무슨 이야기인가?

B. 사람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는가?

C. 형상과 모양이 의미하는 것

① 하나님의 인성

② 하나님의 도덕성

③ 하나님의 영성

D. 이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5) 위에서 공부한 것을 기초로 평등한 만남을 정의해 보라.

2.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만남의 회복(8 과)' 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등했던

관계가 '죄'가 들어오면서 수직적인 관계로 바뀌게 된 사실을 배웠다. 그 문제의 원인은 '비교'에 있었다. 비교는 곧 '내가 남보다 낫다, 혹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비교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열등감이 생기게 된다. 교만과 열등감 가운데서는 평등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그런 만남에는 아픔과 깨어짐이 올 수밖에 없다.

### (1) 교만

20 세기의 파스칼이라고 불리는 루이스(C. S. Lewis) 교수는 교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세상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갖고 있는 악이 하나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 속에 이것이 있는 것이 보이면 세상에 이것처럼 싫은 것이 없게 된다. 그런데도 이것이 역사하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느끼면서도 이것에 대하여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이유 가운데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런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게 하는 죄가 바로 이 죄이다. 이것이 더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이것을 나타낼 때에 더욱 싫어져 못 견디게 된다.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죄이다.”

#### A. 교만은 무엇인가?

※ 웹스터 사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우월감을 갖거나 나타내는 행위'라고 했다.

※ 성경적 정의는 '비교해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두는 행위'이다.

#### B. 교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 에스겔 28 장 11~19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 ① 이 말씀에서 지칭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 ② 그는 어떤 존재였는가?

(14 절)

(12 절)

(12 절)

(15 절)

③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17 절)

▶ 이사야 14 장 12~15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① 이 말씀에서 나타내는 존재는 누구인가?

② 이 존재는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ㄱ.

ㄴ.

ㄷ.

ㄹ.

ㅁ.

③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15 절)

C. 교만의 대가는 무엇인가?

① 잠언 16 장 18 절

② 베드로전서 5 장 5 절

③ 에스겔 28 장 16~17 절

D. 그래도 교만해야 하겠는가?

(2) 열등감

A. 열등감은 무엇인가?

※ 열등감의 사전적 정의는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마음'이다.

B. 열등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 7~8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①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행동은 무엇인가?

ㄱ.

ㄴ.

② 왜 그렇게 되었는가? (5 절 참고)

③ 열등감을 성경적으로 설명해 보라.

C. 왜 열등감이 나쁜가? 창세기 4장 1~8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①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②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5 절)

③ 그 결과는 무엇인가?(8 절)

▶ 열등감과 교만의 관계를 토론해 보라.

3.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교만과 열등감이 두 가지 죄는 그 뿌리가 같다. 즉 '비교'의 열매들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뿌리를 뽑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빌 2:5~8; 요 13:12~15; 막 10:45). 우리는 오직이 예수님을 본받을 때만 이 두 가지 '흉악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 (1) 하나님의 처방

에베소서 2장 11~18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 A.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다. 누구누구인가?
- B.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 C. 이방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무슨 마음을 품었는가?
- D. 성경은 이 둘이 어떻게 가까워졌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 E. 왜 그럴까?(창 3:21 참고)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처방이다. 우리가 다시 비교하고 싸우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 (2) 실제적 제안들

- A.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인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 B.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항상 기억하고, 남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것이다.
- C. 비교하지 말라. 아래의 것들에 유의하라.
  - ① 외모
  - ② 가정 배경, 지연, 학벌
  - ③ 직업, 능력, 지위
  - ④ 재산
  - ⑤ 도덕적 기준
  - ⑥ 영적 기준

암송 구절

★ 아무 일에도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빌 2:3).

## 제 5 과 진실한 만남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시 51:6).

1. 진실한 만남의 의미는 무엇인가?

(1) 진실이란?

※ 사전의 정의는 '거짓이 없는 것'이다.

(2) 현재 맺고 있는 관계 중 비교적 진실한 관계를 생각해 보라.

(3) 위의 만남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보라.

A.

B.

(4) 요한복음 1 장 45~49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무슨 내용인가?

B.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는가?(47 절)

C.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의 특징을 말해 보라.

※ '간사함(Dolos)' - 헬라어 'Dolos' 의 의미는 '속인다'는 뜻이다(창 27:35 참고).

(5) 위에서 공부한 것을 참고해서 진실한 만남을 정의해 보라.

2. 무엇이 문제인가?

역시 비교가 문제이다. 비교의 열매는 교만과 열등감이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인다는 의미이며, 열등감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 즉 남을 속여서 나의 부족함을 메워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한다. 이렇게 '속고, 속이고'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만남은 처음부터 진실성이 없어 곧 깨어지게 되어 있으며 많은 인간 관계에 상처만 남겨 우리가 사는 이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 주곤 한다.

즉 교만과 열등감의 자연스러운 열매는 '거짓' 이다. 비교는 교만과 열등감을, 교만과 열등감은 거짓을 낳고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결과는 모든 관계의 파괴이다.



3. 거짓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1) 창세기 3장 1~5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무슨 이야기인가?

B. 뱀은 사단(마귀의 왕)을 지칭한다. 이 뱀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 요한복음 8장 44 절을 읽고 사단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

C. 뱀이 여자를 속일 때 접근한 방법을 생각해 보고 그 단계를 적어보라(1 절, 4-5 절).

▶ 죄의 나무와 생명과 의의 나무를 비교하고 토론해 보라.

(2) 창세기 3 장 7~8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①

②

B. 위의 행동들은 결국 어떤 행동들인가?

4. 이렇게 '속고', '속이는'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1) 창세기 3 장 12~14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무슨 이야기인가?

B. 결국 남을 속이고 자신을 '가리고' 하면 무슨 결과를 받게되는가?

▶ 창세기 27 장은 이렇게 '소고', '속이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읽고 토론해 보라.

5. 하나님의 처방

투명하지 못하고 거짓된 인간 관계 때문에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천국은 그 모든 관계가 투명하고 진실한 관계이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즉 내 마음의 땅부터 시작해서 가정, 교회, 사회에 이 '투명하고 진실한 인간 관계로의 변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먼저 살게 하신 이유는 영원히 삶을 공유할 천국 백성들로서 지금 이 땅에서 그 삶을 연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하다(시 133 편).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만남이 진실한 만남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만남이 투명하며 거짓이 없는 만남이 될 수 있는가?

### (1) 예수님의 모범

A. 요한복음 1 장 35~42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 ① 내용을 요약하라.
- ② 39 절 '와 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B. 창세기 3 장 1~5 절과 요한복음 4 장 3~26 절 말씀을 비교해 보라.

창세기 3 장 1~5 절	요한복음 4 장 3~26 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라는 관습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체면'을 따져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고 토론해 보라.

### (2) 구체적 제안들

A. '마스크'를 벗어라.

B.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두 가지 동기를 갖고 만날 수 있다.

- ① 순수한 동기를 갖고 한 외로운 인간이 다른 외로운 인간을 만나 사랑의 교제를 한다.
- ②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한다.

우리가 마음의 동기를 잘 검토해 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동기를 갖고 사람들을 대하기가 매우 쉽다. 이것을 경계하라.

C.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

잠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또한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잠시 뿐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 그 사람이 나를 참 진실히 대했다” 아니면 “결국 그 사람은 진실치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다.

D.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벧전 5:8; 요 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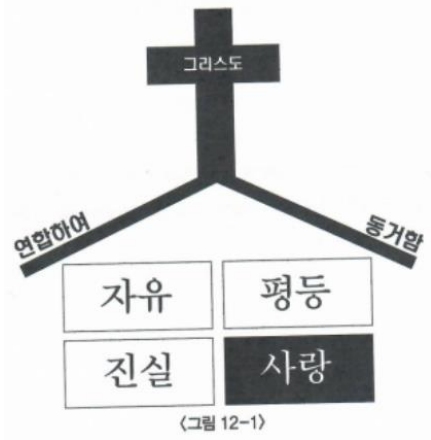
E. 거짓말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자세도 죄이다.

F. '체면'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주의하라.

암송 구절

★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말하며 (시 15:1~2).

## 제 6 과 사랑의 만남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 4:7~8).

1. 사랑의 만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사랑을 정의해 보자.

(2) '사랑'의 세 가지 모습

A. 에로스 성적인 욕망이나 이성간의 사랑에서 생기는 감정을 기초로 한 사랑이다.

이 사랑은 '욕망' 내지는 '열정'이 그 추진력이 되어 있으며 '나' 중심적인 사랑이므로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랑의 행위가 계속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다. 언제나 '받는' 사랑이다.

B. 필레오: 친족 내지는 혈통 또는 친한 인간 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다.

이 사랑은 '상호적(相互的)인 것이다.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유익이 되며 이익이 있을 때만 존재한다. 이 사랑은 '주고 받는' 사랑이다.

C. 아가페: 이타적, 희생적이며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랑을 말한다. 이 사랑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상대방' 이다. 이것은 '주는' 사랑이다.

(3) 나의 사랑의 관계들은 어떠한가?

A. 에로스적 관계:

B. 필레오적 관계:

C. 아가페적 관계:

▶ 질문과 토론: 에로스 사랑이 필레오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고 필레오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4) 고린도전서 13 장을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자.

1~3 절:

4~7 절:

8~13 절:

(5) '사랑의 만남'을 나의 말로 정의해 보라.

2.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하기를 원한다. 이 사랑이 모든 사람들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움' 그 자체일 것이다. 이 사랑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전해질 때 '너와 나'는 외로움의 벽을 뛰어넘게 된다.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너와 나에게 이 사랑이 빛이 되어 갈 길을 보여 준다. 아픔의 시대는 지나고 기쁨의 계절이 도래할 것이며, 죽음의 겨울은 생명의 봄으로 바뀔 것이다.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이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혈문산의 영롱한 아침 이슬이 온 땅 위에 내림과 같을 것이다. '나라이 임하실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아가페를 사모한다. 아가페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아가페가 다른 사람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온 땅이 이 아가페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1) 창세기 3장 5~6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무슨 이야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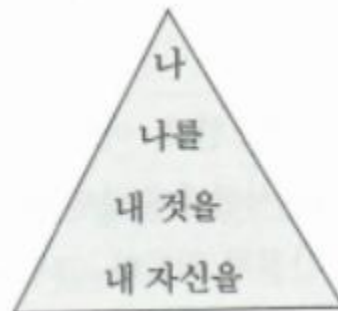
B. 하와는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았다.” 무슨 뜻인가?

C. 무엇이 문제인가?

D. 요한일서 2장 15~16 절은 창세기 3장 6 절 말씀을 설명한 말씀이다. 읽고 묵상한 후 '무엇이 문제인가?' 에 대한 결론을 내려 보라,

(2) 결국 '내'가 있고, 이 '내' 안에 있는 '나의 것' 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탐심을 갖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쟁취하려고 하는 이 '나'라는 이기적인 존재가 문제이다. 아래의 답을 참고하라.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자신의 이기심을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어느 해 여름 나는 내 아들 커트(Curt)와 우리 교회 교인 여럿과같이 오레곤에 있는 로규(Rogue)라는 강에서 카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살이 매우 급한 강이기 때문에 안내하는 사람들로 부터 안전 수칙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그 지시를 받으면서도 눈을 여기저기 돌려서 가장 좋은 새 카누를 찾고 있었습니다. 커트(Curt)에게 눈짓을 하고 가장 안전해 보이는 카누 곁에 서서 안내가 끝나자마자 카누에 성큼 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일행이 한 15명 정도 되었는데 안내자 가운데서도 가장 경험이 있는 안내자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작에 성공했습니다. 잘 놀고 나서 캠프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가던 밴 버스가 갑자기 '핑'하면서 오른쪽 뒤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모두 내려서 잭을 올리고 타이어를 내리고 갈아 끼우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는 차들을 위해서 교통 정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나, 곧 이 이기적인 '찰스 스윈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주 시골길이라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스윈들 저, "Improving Your Serve" p. 33).

문제는 여기에 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도 그만큼 원한다는 사실이다. 그곳에 충돌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상처가 생기고, 아프고, 보기도 싫어진다. 화가 나고 쓰라린 마음을 갖게 되며, 미워하게 된다(렘 17:9).

### 3. 하나님의 처방

어떻게 이 상처받은 아파하는 미워하는 '나'를 극복하고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이룰 수 있겠는가?

(1) 창세기 3 장 9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무슨 이야기인가?

B. 아담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원대로 하지 않았다.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 관계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괘씸하고, 섭섭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으셔야 한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C. 그런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2) 누가복음 23 장 33~38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내용을 요약하라.

B. 34 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에서 "저희"는 누구를 말하는가?

C.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내려 오셨는가?

(3) 로마서 5 장 8~11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내용을 요약하라.

B. 8 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확증되었다고 하는가?

C. 10 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그리고 '원수'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D.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아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이 '아들' 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라.

(4) 마태복음 18 장 21~35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내용을 요약하라.

참고: 1 만 달란트는 약 6 천만 데나리온 정도 된다. 1 데나리온은 품꾼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다. 이는 일생 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1 달란트=6 천 데나리온).

B. 주인은 누구인가? 종은 누구인가?

C. 종이 1 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D.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은 내게 누구를 상징하는가?

E. 왜 그를 용서해야 하는가?

(5) 요한일서 4 장 7~13 절 말씀을 읽고 답하라.

A. 내용을 요약하라.

B. 10 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생각해 보라.

C. 11 절 말씀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한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했는가?(요일 3:16)

(6) 구체적 제안들

A. 1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것을 늘 감사하라.

B. 오래 참으라(고전 13:4).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롬 3:25).

C.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란 사실을 기억하라(요일 3:15).

D. '말과 혀로만' 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요일 3:18).

E. 말씀과 기도, 성경공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 "용서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라.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 이 있는 사랑의 행위이다.

코리텐 봄 자매는 제 2 차 대전 시 유대인을 도와준 죄로 언니와 함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간수의 지나친 학대로 말미암아 언니가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전후 코리텐 봄 자매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수감생활 중에서도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가를 간증하면서 세계 여러 곳에 집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한 독일 지방의 교회에서 간증을 마치고 코리 자매와 악수를 하려고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참 악수를 하고 있는데 몇 사람 뒤에 낯익은 사람이 서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기 언니를 죽인 그 간수였습니다. 가슴이 막 뚝뚝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코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곳에 보내 주셨습니까, 나는 악수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려옵니다. "내가 저의 죄를 위해서도 피를 흘렸노라."떨떠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때 코리는 그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김을 느꼈습니다. 껴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눈물이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범벅이 되게 합니다. 때로 용서하는 행동이 용서의 마음을 가져오게 한다는 귀한 교훈적 실화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벧전 4:8).

#### 암송 구절

★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요일 4:18~ 20).